

보도시점 (온라인) 2024. 12. 23.(월) 14:00

## 신안산대학교,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지원센터 선정

- 신안산대, 이민자 지원 선도대학으로 나서다.
- 1등 대학을 향한 전체 교직원 혁신의지로 뚝뚝 뚫어

신안산대학교(총장 지의상)가 18일 법무부가 주관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센터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정되었으며 신안산대학교는 단원산책숲길 8경에 선정될 만큼 20만평 교지에 조성된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고 수도권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펜타역세권에 위치한 대학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통학이 수월한 대학이다. 이번 선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가점 혜택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안산대학교 캠퍼스 전경]



[신안산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한국문화체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수한 교육 단계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 시 귀화시험 면제, 영주자격 신청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그 이 외에도 체류자격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또는 한국

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제도, 의료·주거·교통·통신·생활정보 및 체류·국적 관련 법령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체류유형별 교육으로는 외국인유학생인 경우 생활법률·질서, 범죄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한국사회적응정보, 유학생 필수정보 교육이 있으며, 외국국적동포(중국)는 생활법률·질서, 범죄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한국사회적응정보, 국내정착 교육으로 외국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지의상 총장은 “이번 선정은 신안산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대학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신안산대 이해영 국제교류협력원장 겸 부총장은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의체 구성·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유학생의 학업 및 정주까지 전주기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 상담 제공 등 졸업생의 취업·정주까지 선제적 지원이 더욱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산대는 2024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406억원의 대학발전 재정기금을 확보하여 급속한 대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부의 재정건전대학선정, 기관평가인증 등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2025년부터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Again 명문 신안산대'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가 원하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인 P-TECH(고속련일학습병행)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안산시여성자치대학, 조경가든대학 등 지자체와 협업하는 시민대학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산학 선도대학으로 전국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다.